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77호 현대불교 29  
2012년 2월 29일(음 2월 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여러분은 무엇이든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요즘 뉴욕이나, LA에서나 어디고 전화가 급하게 오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곧잘 대답합니다. 그것도 그쪽에서 그렇게 급해서 전화하는 사람도 나요, 대답하는 놈도 나야. 만약에 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그런 대답도 안 할 것이요. 또 내가 그쪽에서 그렇게 믿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응? 인간들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나가지만 우리 마음은 비자 안 가져도 다닐 수 있는 거지. 말하고 가지 못하고, 물이 깊다고 건너가지 못하고, 저승이라고 갈 수 없는 게 아냐. 한 잘나야.

그래서 말겨나라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 공부를 시키느라고 하는 거지 나를 발견한다면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가는 거지. 말을 하려나 그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말을 해, 그럼! 그래서 급하다고 전화를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전화를 탁 받는 순간 애길 하나씩 듣는 거지. 내가 들었으면 그놈이 알고 있지 않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고 드는 거야. 자동적으로 알고 있잖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잘 들어요. 의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어느 공장에서 병이 났어. 병이 났으면 나한테 신호가 와. 아프다는 게 신호야. 알았죠? 아프다는 게 신호인데, “아이구, 여기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지. 여기가 아프니까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바깥으로 드는 거야. 신호가 왔는데도 신호가 왔으면 바로 공장장한테 거기니 여기니 할 것 없이 다 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서 대보로 인해서 사지로 신호가 가면은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 공장에서 전체를 조사해 봐라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나서서 그것을 다 고친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이 몸을 형성시킨 거니깐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이거야. 남이 더 잘 알겠어, 형성시킨 자기가 더 잘 알겠어?

그러니까 고장이 난 곳을 고치는데 신호가 오면 벌써 판 데로 나가. 다 형성시킨 주인공한테다가 ‘주인공밖에는 이거 고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야 될 텐데, 알하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갖춰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 데 막 매대길 쳐. 그러니 판 데로 매대기 치는 동안에 벌써 신호를 보냈는데도 아무 소식

이 없으니까, 알라라고 시키질 않으니까 신호를 했는데도 소식이 안 오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판국이지, 어떻게 해!

군대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고 기안을 올렸는데 위에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 직원이 무슨 일을 해. 응? 사장한테 올렸는데, 공장장이 올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하라 말아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거야, 자기 맘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오 걸랑 빨리 조취를 취해서 내 주인공밖에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에 거기에서, 말하자면 두뇌의 총지배자. 그게 누진(漏盡)이라고 그래요. 누진에 올리면은 모든 게 전체 통

신이 돼가지고선 어디가 어떻게 조사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소상히 알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형성시킨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한테 있으며, 여러분 안에 오신통을 스스로 갖추어가지고 있으며, 그 오신통으로 인해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질량을 전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중생이라고만 하고 부처님 법은 높은 데 있다고 하면서 “아이구, 부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낮게 해주세요. 뭐 이끌어주세요.” 뭐가 어떻게 어떻게, 속만 상하면 “아이구,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됐어? 관세음보살, 이게, 관세음보살이

됐다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 안 해.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세상을 이롭게 해서 말한 거지,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롭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해서 지어놓은 거지 여러분이 부르지만 하는 이름이 아니야. 그냥 부르기 이전에 지금 살고 있어. 말하고, 보고, 관(觀)하고 살고 있지 않잖아? 그게 그냥 이름이야.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도리를 모두 알면은 즉, 이름 없는 관세음보살이야. 한마음으로서의 자유인이 되니까.

나는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나는 발견을 한 그때서부터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 하면은 자(子)가 돼요. 그 자로 인해서 움직여졌다 하면 화신(化身)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생각하지 말고 화신이 아들이라 하면은 아버지는 가만히, 무심(無心)으로 가만히 있을 때에는 부처야.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쳐다보면 모두가 아버지로 돌아가. 하나로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고 움직여졌다 하면 바로 아들이다 이거야.

내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공부할 당시에 어느 산중에 가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날더러 묻기를 ‘이거는 아버지의 묘지인데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로 하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가면 아버지로 하나가 되니 그것은 무슨 연고냐.’ 하고 묻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다 이겁니다. 무심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아비로 하나가 되는 거야. 자식이고 아비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24시간 일을 했다 하면은 자가 되는 거야. 따로 아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로 한테 합쳐버려. 그러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일을 과학자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렇게 따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름일 뿐이고 그것은 유의 법에서의 50% 즉,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공부죠. 그러나 빛보다 더 빠른 한 찰나라는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로 채고 있었소? 네? 빛보다 더 빠른데, 미국을 가는데도 요기서 요 한 발짝 쳐다보는 거나 미국에 가는 거나 저 달에 가는 거나, 은하계에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로 재겠느냐 이거야. 쟈 수가 없죠. 그래서 구지 스님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일생을 가르쳐,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손가락이 보통 손가락이 아니거든, 뜻으로 받들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도리를 공부하면서 주장자가 없다면 빈집이 돼서 그 빈집 속에서 업식으로 만난 인연들이 나고 들면서 세균도 끌어들이고, 병들도 끌어들이고, 영계들도 끌어들이고, 인연 땅도 대로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잠구치고 복 치고 하면은 여러분이 살겠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집안 일들이나, 병이 드는 일들이나, 식구들에게 모두, 참 광장지도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은 그 고(苦)를 어떻게 밀고 나가겠느냐 이거야. 그러나 그분이 아니에요. 임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게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이로되, 네게 주장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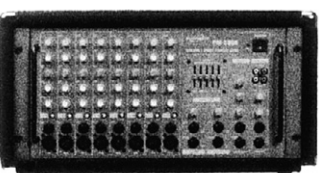
30면으로 계속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高音質 무선마이크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탠드 마이크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50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135,000원(일반형)  
◇가격: 175,000원(고급형)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02)456-8831  
강원도: 019-396-1110  
충청도: 010-8674-2357  
경상도: 010-9190-3350  
전라도: 010-2311-0157

현대 칼라 지붕 공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타력신앙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29면에서 계속

없다면 주장자를 내가 뺏을 것이니라.” 그제 무 슨 소리나.

집이 비었다면은 주장자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온통 아단을 쳐도 모르고 코를 톨하고 눈을 톨하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 해도 본인은 모르는 거야. 자기 집을 그렇게 드나드는지도 모르면서 단전을 해가지고 머리가 이상해지고 하는 것들. 그런 건 몸에 관한 건이지, 피를 톨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일이지 내 마음공부가 아니야. 왜 아냐? 그것도 마음공부 아닌 게 없지마는 내가 이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는 그거는 그냥 몸을 튼튼하게 한다는 생각뿐인 거야. 몸이 튼튼해야 공부한다는 것만 알았지, 내가 모든 걸 귀결해서 놓으면 몸 튼튼해지는 건 물론 모든 부분이 좋아져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몰라. 하나만 알지 몰라.

그래서 바깥에서 타력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은 병자가 많아. 한철 가서 참선방에 가서 있다 오면 병 집이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한철 나고 해제를 하면은 약탕관 떠날 사이가 없다거나 또 결제가 되면 약탕관을 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참선방에 다녀도 혼란이야, 혼란. 이 전 체 삼라만상 도량이 그냥 참선방이야. 변소에 가도 참선이요, 드러누워도 참선이요 그러니까 앉아도 참선이요,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고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면은 모든 게 스스로서 따뜻하게 내 집안이 아늑해져.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화목해지고, 우환이 없어지고 어떤 급한 일이 생겨도 주인공에 맡기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게 돌아와서 어떡하든지 와서 닿아. 그것이 바로 끊어짐이 없는 참선인 것이죠.

아마 체험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그렇게 체험함으로써 내가 나의 주인공을 신임을 하게 돼. 신임을 하게 되면 그때서는 ‘아, 주인공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주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딱 뛰고 가는 거야. 그건 뭐 24시간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그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다니는 것조차도 주인공이다 내 모든 것을 끌고 다니는구나. 그 언덕이 없었더라면 소가 와서 비빌 수가 있겠나. 아,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니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야.

타력신앙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공덕이 하나도 없어. 수천억 만원을 갖다가 준대도 그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만해서 돈이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같아 해.

그리고 이 세상의 사생(四生) 전체가 다 돌아 아닌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비구 비구니를 따진 단 말야. 이거는 벌레도 돌아 아닌 까닭인데 아니, 여자 남자 따진다면은 그건 공부 다 했지. 호랑일 잡으려면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야 호랑

이를 잡지. 또 그 하지못한 개구리를 알려 해도 개구리 속에 들어가봐야 알아.

옛날에 원주에서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데 소가 병이 나니깐 그 집은 다 망하게 생겼단 말야. 젖소를 열다섯 마리 기르는데 열다섯 마리 중에 하나 남곤 다 병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집 망하는 거지, 아주 세상에 광주리에다가 팔하고 돈하고 초하고 사 들고는 그 산중에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직접 만나도 그 사람은 난 줄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럼 그렇게 여쭙드리지요” 이렇게 했지. 내 얼굴을 모르니까. 허허. 나는 바깥에 버섯을 따라 나갔었는데 아, 그걸 광주리에다가 이고 그냥 썰매고 오더라고. 그래도 그거 받지 않았어. 그거 받으면 뭘써. 아무개 스님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그 스님 지금

통신도 되고 전력·광력·자력이 충분히 거기에서 나오고 천체 통신, 타심(他心)·속명(宿命)·천이(天耳)·천안(天眼)·누진(漏盡)이 다 풍부하게 동시에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휴, 우리 소가 다 나아서 이제는 살았습니다.” 하고 왔을 때에 그렇게 기쁜 것은 없어. 또 누가 아무리 나를 속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속인 게 아니야. 이익하게 속이는 거는 속인 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만약에 내 식구가 먹질 못해서 부황이 나가지고 먹을 거를 도둑질 했다면, 그럼 그건 도둑질이 아니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세계에서는 몸을 붙들어가지만 이 마음세계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착한 효자라고 보고 바로, 부모나간 자식을 굶기

하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서 그냥 책을 놓고 내용을 뽑아가지고 하려면은 그게, 여러분 앞에 가고 음이 없이 그것이 갑니까? 불이 켜집니까? 여러분과 나와 마음이 있고 역대 제불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한자리요, 한통속이다 이거야. 그러나 그 한통속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이거야. 한통속에서도 그래야 통을 굴리지. 원심력이 있다면 원통력을 발휘해서 통을 빠져나와서 그 통을 굴려라 이거야. 이것이 바로 오신통을 굴리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어느 거든지 다 갖추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도, 두서없이 진리가 화해서 그저 두서없이 용도에 따라서 쓰니까요. 여러분은 내가 옳다, 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처럼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걸 보려고 그래도 그거는 못 봐. 어떠한 형태라든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도 그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거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들어가는 걸 어떻게 책정을 한단 말이지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이것이 그냥 자유인데.

그래서 전에 탄허 스님이 없고 없고 또 없다는 뜻으로 ‘무무역무(無無亦無)’라고 썼듯이... 없고 없고 또 없구냐! 나는 이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뒷발자국도 없고, 앞의 발자국도 없고, 현재 떼어놓는 발자국조차도 없다고 했죠. 그게 그 소리가. 찰나찰나 고정 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으니까, 이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저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찰나찰나 바뀐다는 거를 어떻게 내가 미리 좀 많이 알았으면 하고 그렇게 욕심을 두느냐 이거야. 하나하나 닦치는 대로, 내가 24시간 살아간다는 대로 24시간조차도 없는 거라. 밤낮도 없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동쪽이 서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고 이렇게 뒤집혀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겠어.

그러나 유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도리를 공부해가지고 유식한 거를 거기에 포함해서 쓰세요. 그러면 좋지만, 우리 이 마음의 공부하는 거는 유식하고 학식이 높고 이름이 높고 그렇다고 해도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무 이익한 게 없어요. 모든 거 아는 것도 다 거기다가, 아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모르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잘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 또 안되는 것도 그놈이 안되는 거. 그러니 안되는 것도 그놈이 해결할 거, 잘되는 거는 그놈에 감사하고, 그놈 그놈, 그놈 아니니 안되죠.

여러분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하나 허공을 믿겠습니까, 내 이름을 믿겠습니까, 역대 보살들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운전수이니깐 잘 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저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는 체계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보는 대로 여러분이 알면 나도 알게 되고, 여러분이 모르면 나도 모르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찰나 생활로 사는 사람이예요, 나는. 그러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잘, 조절해서 체계 있게 잘 생각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음성 공양이 끝난 후) 모두 한 부처이며 각자 자기 부처님 설법을 자기가 듣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 법문은 1989년 3월 19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믿는다고 하나

허공을 믿겠습니까, 내 이름을 믿겠습니까.

역대 보살들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본부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믿어야 됩니다.

안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러구 저러구 해서 지금 소가 전부 병이 들어서 집안이 다 망하게 됐고 벌써 한 마린 쓰러졌고 죽게 됐습니다. 이거를 살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영영 우는 거라.

그래서 그랬지. “그분은 지금 출타하시고 안 계시지만 내가 꼭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려가 보세요. 아마 그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그분은 천리가 있어서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만 해도 아실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분은 알아듣고 벌써 그것을 다 죽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놓고는 내려보냈겠다. 그리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화장도 그렇게 내가 없어도 “안 계시지만 그분은 벌써 알고 계시니 내가 말씀은 해 드리지요.” 이렇게만 해도 그제 마음이 돌아야 닐 까닭에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모두가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눈물이 날 지경이죠. 죄로 물기 이전에.

전에도 이런 말을 종종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마는 전에 소금을 요만큼 싸가지고 다녔죠. 그렇게 남한테 뱃을 달라 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소금만 싸가지고 다니고 아체를 먹으면은 날뜰만 한 움큼 가지면 됐고, 구태여 먹을 거를 싸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 우리가 설법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도 공부하면서 알 양으로, 미리 좀 다 알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으시겠죠. 세상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지금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따라 나한테 닦치는 대로 자꾸 돌아가는데 무슨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거를 체험을 하면 되지, 체험을 하고 자꾸자꾸 돌아가면 되지. 그건 미리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벌써 그거는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알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가끔들 내가 하는 거, 이것이 그냥 옳다 하면서 가져든요. 그러니 제가끔 그냥 두서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연한 겁니다. 질서가.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배는 배대로 놔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오계(五戒)를 받았지만, 오계라는 이름 없는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을 범하지 않으니 오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전체를 범하지 않는데 오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백팔십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삼백오십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숫자로 하는 거는 그거는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다 못 지키는 건 물론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이나 또 우주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우주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와 더불어 쫓기고 쫓는다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가 불성을

##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국민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마을에 불자들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